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7월 18일(금)
--(음력 6월 24일)--
Пятница
18 июля 2025 г.
№ 28 (1214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7월 20일은 국제 체스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우글레고르스크, 내년 신규 진료소 개관

사할린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을 방문하고 크라스노아르메이스카야 거리에 위치한 신규 진료소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하루 700명의 환자를 수용할 이 진료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현재 우글레고르스크 지역 수용 능력의 두 배에 달한다.

이 핵심 시설의 공사는 2023년 5월 시작됐다. 현재 진료소는 40% 완공 상태다. 공사 업체가 11월까지 단열 공사, 지붕 공사를 마치고 내부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주지사에게 보고했다. 진료소는 2026년 1분기 개관 예정이다.

신규 의료 시설에는 성인과 소아 환자를 위한 진료부서가 마련된다. 2층에는 내과 의사, 소아과 의사, 전문의 진료실들, 3층에는 지역간 중앙 센터와 치과가 위치할 예정이다. 검사 처리를 위한 실험실 블록도 구축된다.

사할린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한창이다. 2024년 말 달네에 마을에 현대식 진료소가 문을 열었고, 올해에는 인근에 소아 진료소가 문을 연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젤레즈노도르조나야 거리에도 소아 환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진료소가 개소 예정이다. 2025-2026년에는 흠스크, 돌린스크, 마카로브, 호무토워에서도 신규 진료소가 문을 연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주도로 시행 중인 국가 프로젝트 '장수하고 활동적인 삶'의 1차 의료 현대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주내 11곳에 소진료소가 설치된다.

주지사, 유즈노사할린스크 난방망 정비 점검

난방 시즌이 끝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도시 여러 소구역의 대대적인 난방망 정비 작업이 시작됐다. 다가오는 난방 시즌 열 공급 안정성 제고와 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주초,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작업 현황을 점검했다.

가장 많은 작업이 9번째 소구역에서 이뤄지며, 3개 우차스토크(부지)에서 총 1.5km에 달하는 난방망을 교체한다. 이 결정은 지난 난방 시즌에 발생한 일련의 고장(손상) 후에 내려졌다. 이에 따라 6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소구역의 온수 공급이 일시 중단되었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3년에 걸친 동절기 대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시 전체 난방망을 대대적으로 교체 중"이라며 "전문팀이 모든 설계 문서와 자금을 갖추고 작업한다. 도로 굴착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건 알지만, 3년 후면 현대적이고 안정적인 난방망을 갖추게 돼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도시 편익과 안전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번 난방 시즌 간 완전히 정비될 난방망의 총 길이는 약 2.6km이다. 일부 공사로 일시적 교통 통제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다가오는 난방 시즌 대비 작업은 사할린주 전역에서 진행된다. 올해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서 교체될 난방망은 총 14km 이상이다.

사할린에서 국제 기후 포럼 개최, 친환경 차량 등 전시

8월 1일부터 2일까지 사할린주에서 국제 포럼 '지속 가능한 섬 발전: 기후 측면'이 열린다. 포럼 일환으로 친환경 교통 전시회가 마련돼 방문객들은 전기차, 충전소, 야외 보일러 등 환경 친화적 교통 분야 신제품 15종 이상을 접할 수 있다. 포럼 참가자들은 국가 탄소 규제 정책과 사할린 기후 실험을 러시아 타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논의한다. 사할린 전문가들은 국가 온실가스 규제 및 배출권 거래 시스템 구축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가들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사할린주 동력부 드미트리 쿠와린 장관은 "지역에서 친환경 교통 시장 발전은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이라며 "모든 시민과 방문객의 포럼 회의 및 전시회 참여를 독려한다"고 말했다. 사할린주는 러시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탄소 균형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할당 메커니즘을 시험하는 실험을 진행 중인 지역이다.

사할린 포럼은 9월 3일부터 6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10회 동방경제포럼(EEF)의 사전 행사다. 기후 포럼 직후 '푸시스틱' 드론 기지에서 국제 무인기 포럼 '사할린의 날개', 9월 25일부터 26일까지는 극동 에너지 포럼이 개최된다.

단신

사할린주, 겨울 시즌 준비에 100억 루블 이상 지원

사할린주가 2025-2026 난방 시즌 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전력시설·주택공공시설·사회기반시설 점검과 함께 지자체에 100억 루블리 이상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마카로브와 코르사코브 지역은 보일러 설비 정비로 선두를 달리고, 흠스크는 난방관로 40%,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는 상수도망 61%를 교체했다. 로만 플로트니코브 주 주택공공경리부 장관은 "주민 난방 공급 안정화를 위해 140개 사업을 통해 493개 시설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사할린, 러시아 수산양식 최적지로 부상

사할린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정부 지원으로 러시아 최적 수산양식지로 꼽힌다. 온라인 플랫폼 'АКВАВОСТОК.РФ'를 통해 투자자는 수산구역 경계 설정 신청과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아니와만·사할린 서해안·남쿠릴 열도에 26개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해삼·굴·홍합·가리비·다시마·성게 등이 생산된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양식업이 해양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박람회 '직업의 날' 개최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청년 900여 명이 참가한 전국 고용박람회 '러시아의 일자리. 기회의 시간'이 사할린에서 개최됐다. 6월 27일 '직업의 날' 행사에서는 직업 체험, 마스터클래스, 지역 기업 탐방이 진행되었다.

나탈리아 코왈료와 주 고용노동청 차장은 "이런 행사는 교육과 노동시장을 잇는 교량"이라며 "실제 취업 역량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의사·소방관·기자·조리사 등 10여 개 직종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사할린주, 교사 대상 '패션·디자인' 창의 교육 전략 세션 개최

사할린주 알레리 리마렌코 지사는 24일 지역 교사들과 '패션·디자인' 분야 창의 교육 발전을 위한 전략 세션을 주재했다.

주지사는 "교사의 창의력은 차세대 양성 핵심"이라며 "600명 선발 교사와 협력해 학생들의 비표준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패션·디자인, 애니메이션, KVN(유머 경연) 등 창의적 역량 함양을 강조했다. 교사들은 학교 정규과정에 '패션·디자인 기초' 과목 신설 및 학생 작품 쇼케이스 개최를 제안했다. 참석 교사들은 실기·미술 수업에서 자체 창작 경험(의류, 액세서리 제작 등)을 교육에 활용 중이다.

새고려신문

2025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6개월 구독료는 692,94 루블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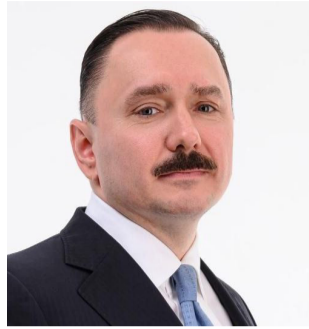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주 투자·산업·대외관계부 장관: 사할린-한국 직항 노선 재개 희망, 사할린은 한국 측과 협력을 이어나가겠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7월 7일 서울 롯데호텔 연회장에서 조·러 수호통상조약 체결 141주년 기념 '국제학술포럼'이 진행됐다. 이에 사할린주 투자·산업·대외관계부 **그루제브 와실리 에브게니에위츠** 장관이 참가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그루제브 장관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느낀다고 하거든요.

- 장관님께서 지난 주 서울에서 열린 조·러 수호통상조약 체결 141주년 기념 포럼에서 발표하신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 전체 회의에서 한 연설은, 공식적으로는 인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할린은 러시아에서 가장 '한국적인' 지역"임을 강조했습니다. 반쯤은 농담이고 반쯤은 진담이죠. 이 발언의 중요한 부분은 사할린 지역이 바로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북방 협력'이 실제로 살아있는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할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한국 시민과 한민족 뿌리를 가진 러시아 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대외 관계 및 투자 담당자로서 이러한 일이 이미 사할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할린은 한민족 문화, 동양 문화가 많은 지역이죠. 한국 사람들이 사할린을 찾아오면 외국, 서양문화의 나라에 왔다는 느낌을 잘 못

- 사할린은 아마도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한민족 문화, 즉 일상 문화가 거의 모든 사할린 주민의 삶에 스며든 지역일 것입니다. 독특한 지역이죠. 사할린 동포가 많이 있는 사할린에는 한민족 전통 음식이 일상화 되고, 한인 문화가 사할린 문화와 융합됐다 할까요. 사할린 특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할린의 정체성과 사할린 한인들이 만들어낸 향토 음식(산나물 등 활용 요리)은 타 지역에는 없는 현상입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저는 모스크바 출신이고 많은 지역과 나라를 다녀왔지만, 사할린 같은 지역은 유일한 것 같아요.

사할린을 말하자면, 한민족 문화를 비롯한 동양 문화가 널리 알려져 있고, 협력을 위한 기반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한국 사업가들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이번 포럼에서 발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동포가 많은 사할린이 더 매력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할린 한인들은

항상 사할린과 한국간의 가교 역할을 해왔거든요. 사업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할린 동포는 문화적, 일상생활 등 모든 측면에서 조국과의 인연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연설에서도 언급했듯이요.

이런 동양적인 요소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 사할린 국립대에 대륙에서, 우리 나라 서쪽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문화와 언어를 사할린에서 배우는 게 더 좋을 것이라 이들을 판단이죠. 우리 대학이 규모가 더 커지고 학생 수도 늘어나고 있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언어교육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지역 문화, 동양, 한민족 문화에 몰입하려고 온 것이죠.

그리고 제재와 모든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할린국립대는 계속 한국대학과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울대 등 유학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 한국의 오킹그룹이 남쿠릴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고 사할린주와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네, 이 업체는 남쿠릴 투자, 특히 양식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작년에 사할린주를 다녀왔고 올 가을에도 올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

습니다.

- 포럼에서 영주귀국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정착하는 우리 사할린동포들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산 고향 마을 관계자가 사할린 직항 문제도 장관님과 논의했다고 하더군요. 또한 사할린의 한 한인단체가 이미 지난 달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포럼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할린 영주귀국자들과의 만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많은 분들이셨어요. 이들은 사할린-한국 노선 재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2021년 12월 '아브로라' 항공의 유즈노사할린스크-인천 노선이 코로나 이후 재개됐으나, 2022년 3월 한국이 전면 중단했습니다. 우리는 직항 노선 재개 문제를 여러 번 제기했고, 한국 외교관들에게도 재차 이 문제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한국에 약 9,000명이 넘는 사할린 동포가 계십니다. 대다수가 노년층인 점을 강조하고 사할린 직항을 재개 목록에서 빼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중국 등을 경유해 15시간 이상 이동하며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측의 '안보·보험 문제'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항공은 러시아 영공 비행을 중단 없이 계속 취항 중이며, 에미레이트 항공은 키예브

의 드론 공격 위험 속에도 모스크바 노선을 운항합니다.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들을 위해 배려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사할린 동포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 얼마 전에 러시아 매체들에서 러시아-한국 직항 노선 재개가 된다는 기사가 퍼졌었는데요.

- 재개를 한다 해도 우선 대도시, 모스크바간 노선이겠죠. 우리는 사할린 직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할린 한인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면에서 한국에 있는 영주귀국자, 사할린 한인 단체 등 우리와 손잡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절박한 문제잖아요. 재개 시 사할린 지역이 직항 우선 순위여야 합니다. 한국 항공이 재개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 측에서 '아브로라'항공에 직항 허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브로라'는 정식 직항노선을 운영할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인도적 차원의 전세기라도 띄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여러 번 '아브로라'항공 콘스탄틴 수호레브리크 대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할린 한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측, 사할린 측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적십자사, 정부 등에 사할린 한인들의 청원서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동안 한 러시아 대사 대행 드미트리

쿨킨과 만나 바로 사할린-한국 항공로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 이번 한국 방문의 결과를 살펴보면 어떤 점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 이번 방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 영주귀국하신 우리 사할린 동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항공 노선 재개를 위한 협력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협력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유지해왔으며, 이 입장에서 결코 물러선 적이 없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로, 서울 방문 기간 중 저는 사할린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두 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대규모 목재 가공 설비 건설 프로젝트이며, 둘째는 시멘트 공장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이 기획들은 장기적이고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우리는 모스크바에서 필요한 관련 허가를 취득하는 등 매우 큰 준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협력 기업을 찾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국 측에 밝혔습니다.

- 바쁘신 중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 저 모

사할린주, 2025년 초 연금지급 상위 10개 지역 진입

사할린주가 2025년 초 러시아 연금 지급 상위 10개 지역에 선정됐다. "시네르기야" 대학 경제학자들은 북부 수당과 추가 지원 조치 덕분에 이 지역 연금 규모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Mail.ru 파이낸스에 전했다.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연금은 추코트카, 야말, 캅차트카, 마가단, 모스크바 주민들이 받는다. 전국 평균 연금은 현재 25,000루블리 수준이지만, 북부와 극동 지역에서는 30,000~39,000루블리에 달한다.

이 차이는 지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의 생계비,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는 근로자 혜택, 지역 지원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일어난다. 남부와 농촌 지역에서는 경제 사정과 인구 구조 등으로 인해 이 수치가 훨씬 낮다.

이에 사할린에서는 연금 수급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책을 개발 중이다. 단순 급여·혜택을 넘어 재교육이나 창업 보조금도 제공된다. 이러한 맞춤형 접근은 섬 주민의 생활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топ-10 по уровню пенсионных выплат на начало 2025 год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десятку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с самыми высокими пенсиями в начале 2025 года. Размер выплат здесь значительно превышает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ий уровень благодаря северным надбавкам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мерам поддержки, сообщили экономисты университета «Синергия» Финансам Mail.

Самые высокие пенсии в России получают жители Чукотки, Ямала, Камчатки, Магадана и Москвы. Средняя пенсия по стране сейчас держится на уровне 25 тысяч рублей, но на Севере и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эта сумма может достигать 30-39 тысяч.

Такая разница — не только в географии. Роль играют доплаты за жизнь в труднодоступных местах, льготы для людей, работавших в тяжелых условиях,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На юге страны и в аграрных регионах цифры гораздо скромнее — влияет и экономика, и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Так, на Сахалине развивают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и создаю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вышения доходов пенсионеров и других социально уязвимых категорий. Речь идет не только о выплатах и льготах — жители могут пройти переобучение или получить гранты на открытие собственного дела. Такой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одход позволяет шаг за шагом повышать уровень жизни островитян.

사할린 사격팀, '조국 수호자 컵'에서 금·은·동메달 획득

사할린 대표팀이 극동 11개 지역 선수를 제치고 '조국 수호자 컵' 사격 대회에서 금·은·동메달을 휩쓸었다고, 지역 스포츠부에서 세부 결과를 전했다.

"위스토크" 훈련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회에는 4개 등급으로 나뉜 70여 명의 군인이 참가했다. 최고령 참가자는 60세였고 최연소 참가자는 2003년생이었다.

SH1 클래스에 참가자가 가장 많았으며 92점을 따낸 사할린의 블라디미르 아일로브가 우승했다. 부라티야 베테랑이 1점 차로 2위, 아무르 주 대표가 3위를 차지했다. SH2 등급에서는 사할린의 유리 나움킨(100.2점)이 정상에 올랐고 2위는 부라티야의 알렉산드르 단자노브, 3위는 자바이칼리의 막시미 자벨린이 차지했다.

'오픈' 클래스에서는 캅차트카 군인이 1위를, 사할린의 아르쭘 딜무라도브와 블라디미르 포포브가 각각 은·동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VK' 등급에는 유대인 자치주 선수만 참가했다.

이번 컵은 국가기금 '조국 수호자', 러시아 패럴림픽 위원회, 사할린 주정부의 지원으로 개최됐다.

Сахалинская команда стрелков завоевала золото, серебро и бронзу «Кубка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ая сборная опередил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диннадцати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амые меткие спортсмены-островитяне выиграли медали всех достоинств в рамках физкультур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Кубок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Подробности опубликов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пулевой стрельбе провели в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м центре "Восток". В них поучаствовали порядка 70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разделенных на четыре класса. Самому старшему исполнилось 60 лет, самый молодой участник — 2003 года рождения.

Класс SH1 был самым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В нем отличился сахалинец Владимир Авилов, набравший 92 очка. Всего на одно очко меньше заработал ветеран из Бурятии, а третье место заня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В классе SH2 победил островитянин Юрий Наумкин, который набрал 100,2 очка. Второе место взял Александр Данзанов из Бурятии, третье — занял Максим Забелин из Забайкалья.

В классе "Открытый" одержал победу военный с Камчатки. Серебро и бронзу забрали сахалинцы Артем Дильмурадов и Владимир Попов. При этом в классе «VK» соревновались только стрелки из Ев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и.

Напомним, что "Кубок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организовал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осфонда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Пара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России, а такж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8면에 계속)

사할린 미술관, '동방. 다도식' 전시 개막

사할린주 미술 박물관에서 지난 9일(수) '동방. 차 의 식' 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는 모스크바 국립 동양박물관과 공동으로 기획되었다.

축사를 한 블라디미르 노소브 러시아 외무부 유즈노 사할린스크 대표는 "2025년은 러시아-중국 교차문화의 해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양국 간 상호이해와 대화의 중요한 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시 기획자인 미술박물관 올라 하이 수석 연구전문가는 인사말을 한 후 개막식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관람을 진행하며 동양 차 문화의 세계로 안내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차 의식이 신화적 기원에서 일상적 실천까지 발전해온 과정을 조명한 이 전시는 박물관 소장품인 중국·한국·일본 작품을 통해 다도식 문화의 철학적 깊이, 문화적 의미, 정교한 미학을 소개한다. 또한 모스크바 국립 동양박물관 소장품 중 400년 이상 된 유물 11점이 주목받았다.

특히 도교와 선불교 같은 종교·철학 사상의 연계성, 동양 예술가·시인·사상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된 자연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16세기, 18세기, 20세기 초 제작된 물병, 차주전자, 거품기, 술잔, 찻잔 등 희귀 차 도



구와 장식공예품, 산수화 작품을 통해 동양적 세계관의 정교함이 구현됐다.

올라 하이 수석 연구전문가는 "차 의식과 지적 대화의 발전·변화 과정에서 전용 도구가 등장했다"며 "원래 차 우리에는 포도주 용기(술병, 주전자)가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8월 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배순신 기자)

재외동포청, 7월 '이달의 재외동포'에 '사할린 동포 귀환운동의 선구자' 박노학 선정

일본서 사할린 귀환 운동... 7천여명 수록된 '박노학 명부'로 사할린 동포 존재 알려
편지 중개, 가족 상봉 주선 등 인도적 교류에 앞장... 영주귀국 제도화 초석 마련
이상덕 청장 "사할린 동포 역사의 한 획" ... 정부,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2025년 7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사할린 동포의 귀환운동을 주도하고 이산가족 상봉 실현에 헌신한 박노학(1914~1988년) 전 사할린여류귀환한국인회 회장을 선정했다.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 발전 또는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를 발굴해 매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발표하고 있다. (3월 김평진(1926~2007) 전 제일제주개발협회장, 4월 홍명기(1934~2021) 전 M&L Hong 재단 이사장, 5월 임천택(1903~1985) 독립운동 지사, 6월 박병헌(1928~2011) 전 재일민단 단장)

1914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인 1943년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박노학 전 회장은 1945년 해방 후에도 무국적 상태로 사할린에서 억류된 상태로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일본인과 결혼해 1958년 일본으로 귀환해 사할린 동포들의 존재를 알리고 이들의 고국 귀환을 촉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박 전 회장은 일본 정착 후 자신의 단칸방을 사무실 삼아 귀환운동단체인 '화태(사할린) 여류귀환한국인회'를 창설했다. 막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탄원서와 진정서를 작성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할린 동포의 귀환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오랜 세월을 살아야 했던 동포들을 위해 그들이 사할린에서 써서 보낸 편지를 한국 가족에게 전달하는 '우편배달부' 역할을 자처했다.

당시 한국과 구소련은 국교가 수립되지 않아 우편을 통한 서신 왕래가 불가능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일본에서 사할린 동포들의 편지를 받아 이를 다시 한국에 사는 장남 박창규 씨에게 보내 가족들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생사 확인, 가족의 근황, 귀환 희망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이들 편지 한 통 한 통이 기적 같은 소식이었다.

사할린 동포들 사이에서 "박노학에게 부탁하면 가족을 찾아준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편지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났고, 30여년 동안 박 전 회장 부자(父子)가 전달한 편지는 3만 여통에 달한다.

박 전 회장은 또한 1960년대 중반부터 사할린 동포들의 국적·지역·귀국 희망 형태 등을 기록한 이른바 '박노학 명부'를 만들었다.

약 7천명이 수록된 이 명부는 사할린 동포의 귀환 의지를 공식적으로 집계한 최초의 기록물로, 한국과 일본, 구소련 3국의 사할린 동포 관련 외교 협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됐다.

또한 이 명부는 사할린 동포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역사적 사료이자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대상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입증하는 기준이 됐다.

그는 사할린 동포의 귀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고국의 가족과 상봉을 위해 일본 정관계 등 인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일본의 정치인 등과 협력해 구소련 당국을 설득했고, 1984년 사할린 동포 10명의 일본 방문과 가족 상봉을 최초로 성사시켰다. 이는 전후(戰後) 최초의 사할린 동포 공식 출국으로 귀환 운동의 물꼬가 됐다.

박 전 회장은 초청 대상자 선별, 숙소 마련, 통역 등을 모두 자비로 도맡았으며, 그의 좁은 다다미방은 이산가족이 눈물로 다시 만나는 공간이 됐다.

이후 그는 한국의 가족들이 일본으로 오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사할린 동포들이 일본을 경유해 모국을 방문하는 상봉 방식을 제안했다. 1988년 6월 일본 의원단이 구소련을 방문해 이같은 방식을 요청했고, 같은해 9월 일본을 경유한 가족 상봉이 처음으로 성사됐다.

이런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사할린 동포들의 가족 상봉은 오늘날 우리 정부의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으로 연결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1988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박노학 전 회장은 일제 강점기 강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진 못한 사할린 동포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식민 피해,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받은 이들을 위로한 진정한 선구자였다"며 "일평생을 바쳐 사할린 동포사에 한 획을 그은 그의 삶을 기리기 위해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광복 80주년 맞아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를 소개한다.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강상진

관리번호	9900		
성명	강상진	한자	姜相震
이명	姜應五, 姜是愚	성별	남
생년월일	1897-10-05	사망년월일	1973-05-01
본적	함경남도 이원 南 壽巷 574		



공훈록

함남 이원(利原) 사람이다.

1919년 항리에서 3·1운동에 참여한 후 만주 장백현(長白縣)으로 망명하여 대한독립군비단(大韓獨立軍備團) 장백지단 유일우(劉一優) 부대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그가 활동했던 대한독립군비단은 1919년 3월 만주지역에서 3·1운동이 전개된 후, 동년 5월경 함경남도 혜산진(惠山鎭) 대안(對岸) 장백현에서 함경남도 출신의 이희삼(李熙三)·이동백(李東白)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독립운동단체이다.

1919년 11월 1일경 이 단체의 주요 간부는 단장 이태걸(李泰杰), 부단장 김동준(金東俊), 총무장 김찬(金燦), 재무장 이동백, 경무부장 이광랍(李光拉), 참모장 서병호(徐丙鎬) 등이었다. 또한 대한독립군비단에서는 1920년 2월, 운동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기 위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는데 그 때 간부는 단장 이은향(李殷卿), 부장

(副長) 이태걸, 군사부장 이동백, 재무부장 윤덕보(尹德甫), 참모부장 김 찬, 경찰부장 정삼성(鄭三星), 문사(文事)부장 김종기(金宗基), 외교부장 조훈(趙勳), 소집부장 김경익(金鼎益), 공창부장 김진무(金振武) 등이었다.

한편 대한독립군비단에서는 지단 조직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19년 11월 1일 조직된 장백현 17도구(道溝)의 장백지단이다. 아울러 국내에도 지단 조직을 확대하였는데, 그 조직망은 대개 중심 인물들의 원적지인 함경남도 지역이었다. 대표적인 지단으로는 함경도 단천(端川)지단과 북청(北靑)지단을 들 수 있다. 강상진은 1921년 3월 3일 군비단에서 군대를 러시아로 이동시킬 때, 2번째 부대의 책임자로 러시아령 이만(현재명 달레네첸스크)으로 이동하여, 동년 7월 군비단이 고려혁명군용군대(高麗革命義勇軍隊)로 개편된 후 조직한 사관학교의 일원으로 고려혁명군사의회(高麗革命軍事議會)의 헌병대장으로 활동하였다. 1921년 12월부터는 러시아령에서 러시아 백군과의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1922년 러시아 내전이 끝난 후에는 1923년부터 3년 동안 동만주 지역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다 러시아로 돌아왔으며, 1927년부터는 밀산현(密山縣)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계속하다가, 1930년 이임삼(李立三)노선이 비판당하자 블라디보스톡으로 다시 망명하였다. 그 후 그는 한때 블라디보스톡 사범대학에서 청강생으로 수학하였으며, 노동자, 신문사 채자공 등으로 일하다 1973년 5월 1일 작고하였다. 그의 묘소는 현재 모스크바에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국외용외조선인명부(총독부경무국) 110면
- 독립군의 수기(국가보훈처) 17~46면
- 서신(김화순, 1990. 7.) 내용 중 강상진 이력 묘소 : 러시아

(편집 이철수)

한국자금중개 · 예보, 사할린 · 다문화동포 후원금 전달

(서울=연합인포맥스) = 한국자금중개와 예금보험공사는 공동으로 조성한 후원금을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과 아시아발전재단, 금천구가족센터 등 3개 기관에 3천만원씩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은 절기 행사와 친지 초청 프로그램 등의 정서·생활지원 사업과 복지회관의 노후화된 대용량 세탁기를 교체하는 데 후원금을 쓸 예정이다. 아시아발전재단은 고려인 동포들의 제과·제빵 직업

훈련 기초와 심화 과정 교육 등 진로 정착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한다.

금천구가족센터는 후원금으로 중도입국자녀 등을 대상으로 '1인 1특기 프로젝트'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해영 한국자금중개 대표는 "국내 거주 동포들에게 희망과 기회의 문을 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днимают вопрос о прямом авиасообщении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Кореей

От редакции: Как известно,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ковида, а также после введения со сторон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анкций, связанных с СВО, было отменено прямое авиасообщение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К. В результате страдают многи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для ознакомления письмо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КО АСК) по вопросу возобновления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Губернатор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И. Лимаренко**

**Представителю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Н. Носову**

Уважаемый Валерий Игоревич!
Уважаемый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КО АСК) обращается к Вам от лица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обеспокоенных граждан, сталкивающихся с трудностями при пересечен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границ, с надеждой на Вашу поддержку в крайне важном для населения острова вопросе.

Просим Вас оказать содействие в организации прямого воздушного 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Сахалином (не исключается вариант в формате чартерных рейсов).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живают более 26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ногим из которых дороги связи с родными и близкими, проживающим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реди нас есть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пожилых людей, для которых преодоление долгого расстояния каждый раз становится настоящим испытанием.

Много семей прекл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уехало по программе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И многие не видели св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родных с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Так как возраст 1-го поколения приближается к 90 годам, важен каждый день в решении данного вопроса.

Организация прямого воздушного сообщения (в т.ч. чартерные рейсы) не только поможет сохранить важные семейные узы, но и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социальным и культурным связям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Считаем, что создание прямого воздушного сообщения существенно улучшит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наших граждан, обеспечив им доступ к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семейным встречам и культурным обменам. Возобновление авиасообщения по маршру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Сеул станет важным шагом в создании дружеских связей между двумя народами.

Мы понимаем все сложности, но искренне надеемся на Вашу поддержку и готовность рассмотреть нашу просьбу.

**С уважением,
председатель НКО АСК
Ко Ен Сун**

Выставка "Восток. Чай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лась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Восток. Чайная церемония". Экспозиция организована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музеем Востока (Москва).

«2025 год объявлен Годом перекрёстных культур России и Китая. Такие проекты становятся важ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и диалога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 подчеркнул торжественном открытии выставк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Ф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ладимир Носов.

Куратор выставки, главны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музея Ольга Хай, провела первую экскурсию, погрузив гостей в мир восточной чайной традиции. Выставка предлагает проследить путь чайного обряда от его мифологических истоков до повседневной практики, сосредотачиваясь прежде всего на культуре Китая.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уникальные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предметы, раскрывающие философскую глубину, культурное значение и изысканную эстетику чайной церемонии Китая, Кореи и Японии.

Особый акцент сделан на связи чаепития с религиозными и философскими учениями — даосизмом и чань-буддизмом, а также на роли природы как вечного источника вдохновения для художников, поэтов и мыслителей Востока. Среди экспонатов — уникальные предметы чайной утвари XVI, XVIII и начала XX веков (сосуды для воды, чайники,



венчики, кубки, чаши), произведения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 пейзажной живописи, иллюстрирующие тонкость восточного мировосприятия. Особую ценность представляют 11 экспонатов из фондов московского Музея Востока, некоторым из которых более четырех столетий.

«Растущая популярность чайных напитков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развитию и трансформации чайной церемонии. Это же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и появлению новой чайной утвари», — пояснила Ольга Хай. — Эта историческая связь хорошо прослеживается в экспозиции, где можно увидеть, как предметы, изначально служившие для вина, со временем стали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чайного ритуала.

Выставка предлагает посетителям погрузиться в созерцательную атмосферу традиционного восточного чаепития, увидев в нем культурное явление, объединяющее ритуал, повседневность и саму поэзию жизни.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выставкой жители и гости острова смогут до 6 августа.

Виктория Бя

Все для СВО

Вкусно как дома: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готовят кимчи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халин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участвующие 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СВО), обратились в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с просьбой. Бойцы попросили прислать корейских продуктов, рассказав, что привычную для островитян кимчи на Донбассе достать практически невозможно.

На помощь пришли актив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Они использовали специальную пасту для закваски капусты, позволяющую долго сохранять свежесть

блюд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ООСК) общими усилиями для бойцов уже приготовлено и отправлено около 600 килограммов национальной закуски.

На передовой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готовят из кимчи любимые блюда, например, обжаривают острую капусту с луком и мясом в большом казане. Бойцы отметили, что корейская кухня понравилась и их сослуживцам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ЮСМООК отправила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на СВО

Член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закупили и отправили на СВО очередную партию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включающую медикаменты, бинты, салфетки и другие необходимые вещи. В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стоянный сбор средств для нужд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Координацию этой работы осуществляет молодежная группа во главе с замести-

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ЮСМООК Пак Вениамином.

ЮСМООК была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а, начавших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сахалинским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на СВО в различных формах: плетение маскировочных сетей, организация обедов на тренировочных полигонах и др.

**(По материалам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подготовила Виктория Бя)**

Творческая встреча, посвящённая Дню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8 июля 2025 года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ООК),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гресс этножурналистов «Культура мира» (ВКЭЖ) 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 поддержке Дом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провели в Москве творческую встречу, посвящённую Дню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звали на встреч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ворче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ин Москвы и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деятеле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Приглашены бы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НКА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ин, этножурналисты, активисты и ветераны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поддержка осуществлялась теле- и радиоканалами, СМИ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ин, газетой и сайтами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Корё сарам»,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гресса этножурналистов «Культура мира».

Целью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о провести празднование Дня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который олицетворяет ценность крепких отношений, поддержку и заботу внутри семьи: супружеской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О роли семьи в воспитании детей и формировании стабильной, гармоничной личности во благо Отечества.

К участникам встречи обратился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ОК Моисей Ким, поздравивший всех с Днём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От Дом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собравшихся приветствов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Дом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Елена Башкурова, отметившая, что День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хорошо принимается в российском обществе. С кратким приветствием обратилась к участникам встречи Нелли Николаевна Эм, отметив, что в традиции корейцев лежит союз преданных пар, вдохновлённых любовью, согласием и верностью, заботой о воспитании своих детей, внуков.

На встрече были почётные гости: заслуженный учитель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снователь Русско-корейской школы № 1086 г. Москвы Нелли Эм,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ссии п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е Совета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осквы, председатель ВКЭЖ «Культура мира» Джамил Садыкбек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Мос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ООК Александр Пак, поэтесса Марта Ким, дирек-



тор школы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языка Ха Чжон Хюк, преподаватель РУДН и Высшей школы экономики Ким Вон Иль и другие. Затем началась встреча с культурологом, лауреатом Всесоюзных и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конкурсов и фестивалей массовых и культурных представлений Вениамином Кимом, прошли выступле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руководителей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общественных деятелей. Замечательно выступила поэтесса Марта Ким со своими новыми стихами и афоризмами. Оригинальный танец «Сальпури чум» исполнила Диана Зверзлова, воспитанница директора Школы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языка в Москве Ха Чжон Хюк. В течение встречи состоялась беседа и мастер класс Вениамина Кима о мужской харизме и женском шарме. На празднике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конкурсы на самую элегантную женщину, самый красивый костюм и образ, а также на темы «Что такое идеал женщины?», «Самый талантливый человек «кто во что горазд»,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ее блюдо.

Жюри присудило призы за яркие образы, мнения, точ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и решения при ответе. Призёрами в разных номинациях стали более 15 победителей. Им были вручены оригинальные подарки.

Завершилось мероприятие небольш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частью в котором выступили артисты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ружеское чаепитие состоялось с победителями конкурса на лучшее блюдо.

**Моисей КИМ,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ОК, культуролог
(Источник: сайт Коре сарам)**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зидент РК направил приглашения на саммит АТЭС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направил письма лидерам 20 стран-члено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ТЭС) с приглашением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аммите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31 октября – 1 нояб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городе Кёнчжу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Как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президента Кан Ю Чжон, приглашения отправлены 14 июля. В письмах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ысоко оценил вклад АТЭС в устойчив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и процветание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за последние 30 лет.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тема саммита этого года - «Устойчивое будущее, которое мы создаё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считает успешное проведение саммита АТЭС своим главным приоритетом,- добавила Кан Ю Чжон.

Лидер КНДР подтвердил поддержку России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подтвердил безоговорочную поддержку всех действий России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ергеем Лавровым, состоявшейся 12 июля в Вонсане.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Ким Чен Ын и Сергей Лавров обсудили выполнение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достигнутых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Ким Чен Ына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в ию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Пхеньяне. «Две страны имеют общие взгляды по вс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ровнем их союз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 сказал Ким Чен Ын. Сергей Лавров высоко оценил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сфере, выразив намерение «укреплять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и такт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стреча подтвердила решимость руководств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России «тес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друг с другом на пути к полной защите основных интересов двух стран и всемерному содействию общему развитию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в рамках Договора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ёрстве,-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изывает эффективно планировать бюджет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призв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 подготовке бюджета на 2026 год скорректировать расходы,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эффективное распределение средств для поддержк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экономики. «Учитывая сложные условия, в которых оказалась отечественная экономика, и значительное ослабление частного сектора, правительству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отребуются проводить активную налогово-бюджетную политику»,-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ыступая 15 июля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Он поручил министерствам разработать эффективный,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й на людей бюджетный план, который поможет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и дальнейшему росту экономики.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ветствовал решение студентов-медиков вернуться в университеты после 17-месячного бойкота занятий в знак протеста против плана медицинской реформы предыдущ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н призвал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разработать и реализовать политику,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Саундтрек Golden на шестом месте в чарте Billboard Hot 100

14 июля оригинальный саундтрек Golden к популярному анимационному фильму Netflix под названием K-pop Demon Hunters вошёл в первую десятку американского чарта Billboard Hot 100, заняв шестое место. Композиция в исполнении вымышленной K-pop-группы Huntress из анимационного фильма поднялась на 17 позиций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ей неделей. За последнюю неделю она набрала 18 млн 800 тыс. стримов, что на 39 % больше, чем неделей ранее, получила 950 тысяч баллов за радиоэфир и была продана в количестве 3 тысяч копий. Чарт Billboard Hot 100 формируется на основе совокупных данных о стриминге, радиоэфире и продажах. Ещё одна композиция из фильма под названием Takedown в исполнении Чон Ён, Чи Хё и Чхэ Ён из группы TWICE дебютировала на 86-й строчке чарта. Для всех троих участниц это первое попадание в Billboard Hot 100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составе вне рамок группы.

Samsung Electronics – лидер мирового рынка смартфонов

По данным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компании Canalys, во втором кварта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доля продук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Samsung Electronics составила 19% мирового рынка смартфонов. Это позволило компании удерживать первое место на рынке. Следом идут американская компания Apple с долей 16 % и китайская Xiaomi - 15 %. Эти показатели совпадают с результатами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Samsung Electronics сохранила лидерство благодаря устойчивым продажам смартфонов бюджетной серии Galaxy А. Четвёртое и пятое места заняли китайски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Transsion и OPPO — по 9 % каждая.

RKI

Столицы соединит воздушный мост

Москва, 16 июля – ИА РУСКО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 Россия планируют запустить прямое авиасообщение между своими столицами, Пхеньяном и Москвой, в конце этого месяца. Российская бюджетн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Nordwind Airlines начнет выполнять прямые рейсы между двумя городами с 27 июля, сообща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и. По сообщен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это будет первый случай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столицам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России. Новый авиамаршрут открываетс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российские авиационные власти одобрили запрос авиакомпании Nordwind на выполнение прямых рейсов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Москвой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Время полета составит около восьми час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ямые рейсы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только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Владивостоком.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страны также возобновили прямо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е сообщение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Москвой, а также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Хабаровском после приостановки из-за COVID-19. В апреле они также нача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моста через реку Туманган, который соединит их территории.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в Вонсан, город на 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ергей Лавров заявил, что Россия планирует восстановить морские транспортные пути между странами.

Тарифное давление Трампа толкает Южную Корею к пакетной сделке с США

Южная Корея оказалась в крайне уязвимой позиции в отношениях с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До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введения 25-процентных "взаимных" тарифов н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товары остаются считанные недели - и для Сеула это уже не просто торговый спор, а политико-экономическая борьба за будущее всей системы альянса с США.

Ставки в этом торге высоки: от военн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йск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до условий торговли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ей, полупроводниками и сжиженным газом. Сеул отчаянно пытается пере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в плоскость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диалога - но по мере ужесточения риторики со стороны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становится очевидно: избежать болезненных уступок не удастся.

"Пакетная сделка": инициатива Сеула

Ключевая ставк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Ли Чжэ Мёна - навязать США формат "пакетных переговоров", в которых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ся не только тарифы, но и широкий комплекс взаимосвязанных тем: инвестиции, закупки, доступ к рынкам, модернизация альянса, оборона и даже такие чувствительные вопросы, как оперативный контроль армией в военное время. Как отметил советник по нацбезопасности Ви Сон Нак, формат предложен как "комплексный путь к новому этапу двусторонне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американская сторона, включая госсекретаря и советника по нацбезопасности Марко Рубио, "выразила понимание".

Но между "пониманием" и подписанием соглашений - пропасть. Вашингтон пока сохраняет паузу, не назначая даты саммита, и, как полагают в Сеуле, делает это сознательно: чтобы дожать корейскую сторону ближе к дедлайну - 1 августа. По версии некоторы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пауза - часть тактики Трампа: создать атмосферу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и тем самым вынудить Сеул проявить инициативу в уступках.

Чем грозит ультиматум Трампа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вновь включил Южную Корею в список "несправедливых торговых партнеров", и ввел 25%-ные тарифы на широкий перечень товаров. Среди них -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медь,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ая продукция. Серьезный удар может быть нанесен по экспортной модели экономики РК, где доля экспорта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40% ВВП, а США - второй по значимости рынок.

Но экономическое давление сопровождается не менее жестким шантажом в сфере обороны. Трамп требует увеличения доли оплаты пребывания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йск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до \$10 млрд в год - это в девять раз больше утвержденного объема на 2026 год (1,52 трлн вон или \$1,1 млрд). "Мы даем им бесплатную армию", - заявил Трамп, намекая, что Сеул должен платить за безопасность, которую он получает "по знакомству".

Эти заявления вызвали встревоженную реакцию в Сеул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е ведомство РК напомнили, что текущая система - это не "подарок США", а особое соглашение (SMA), по которому Корея уже оплачивает значительную часть расходов, включ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зарплату, логистику и прочее. Кроме того,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бесплатная земля, налоговые послабления, участие корейских солдат в программах совместного обучения.

Ответ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Сеула: судостроение, газ, чипы

Сеул,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не готов сдаться без торга. Как заявил министр по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 Ё Хан Гу,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редложила включить в пакет

сделки такие сферы, как: расширение закупок американского СПГ и участие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СПГ-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Аляске; кооперация в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особенно в проектах по обходу китайских компонентов;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в области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которые США расценивают как критическ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будущего; закупки американского оружия и технологий.

Взамен Корея рассчитывает на: отмену или отсрочку введения тарифов; смягчение требований по оплате американского контингента; призна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норм и сертификаций в сфере цифровых платформ и данных.

Согласно инсайдам, американская сторон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оявила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 кооперации в судостроении и полупроводниках, особенно в свете борьбы с китайским влиянием. Однако ясно и другое: Вашингтон намерен использовать эти сферы как рычаг для более выгодных условий на друг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 например, по рынку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и и автомобилей, где у США дефицит, а у Кореи - устойчивый профицит.

Возможный компромисс и угрозы

В экспертных кругах растет консенсус, что "пакетная сделка" неизбежна. Как заявил профессор Пак Вон Гон, "Трамп действует по логике максимального давления: он не дает ни малейшего шанса расслабиться, пока не получит максимум".

В этой логик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и другие инструменты давления: обсуждение сокращения численности войск США до 10 тысяч человек; заморозка переговоров по передаче оперативного контрол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OPCON); ужесточение условий доступ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к американским рынкам.

Показательно, что параллельно в США опубликован доклад Defense Priorities, в котором предлагается масштабное сокращение американского военн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в РК и перераспределение ресурсов в сторону сдерживания Китая. Это может быть как "пробный шар", так и часть давления.

Тем временем, в Сеуле обсуждаются возможные уступки, включая поэтапное увеличение военного бюджета до 3,5% ВВП (ныне - 2,3%), расширение участия в региональных инициативах США и актив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энергетике. Официально власти заявляют, что "рассматривают разные варианты в интересах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огноз: затяжная партия на грани нервного срыва

Как бы ни завершился текущий раунд переговоров, ясно одно: отношения РК и США вошли в фазу болезненн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Сеул пытается выстроить новую модель партнерства, в которой Корея будет не просто платящим союзником, а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актором с набором взаим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Однако, пока что Трамп играет в одиночку и по своим правилам. И, как справедливо замети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генерал в отставке Чон Ин Бом, "в этой партии карты у него в руках, а Корея должна думать, как сыграть хотя бы вничью".

При этом слишком щедрые уступки грозят внутренним политическим кризисом в Сеуле. Слишком жесткая позиция - экономическим крахом. "Решение будет не между добром и злом, а между плохо и еще хуже", - резюмировал профессор Ли Син Хва.

Окончание этой дипломатии торга, похоже, придется на конец июля. И если до 1 августа компромисс найден не будет - начнется новая реальность, в которой США и РК будут больше напоминать договаривающихся акционеров, чем партнеров по союзу.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Юрий Трутнев: объявлен конкурс на концепцию памятника, посвященного Победе Красной Армии в последнем бою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на Шумшу

По поручению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я Трутнева объявлен открытый творческий конкурс на лучшую архитек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концепцию памятника, посвященного Победе Красной Армии в последнем бою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амятник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 на курильском острове Шумшу. Организаторы – Российское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и аппарат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В этом году наша страна отмечает 80-летие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Мы чтим подвиг отцов и дедов, проливавших кровь за свободу Родины и мирное небо над головой, подвиг тружеников, ковавших Победу в тылу. Одна из самых главных задач, которая стоит перед нами – не просто помнить о героизме нашего народа, а передавать память об этом потомкам.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закончилась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Здесь, на курильском острове Шумшу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Курильская десантная операция. В годы войны Шумшу представлял собой почти неприступную крепость. По законам во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для взятия укрепленных позиций, наступающие должны иметь как минимум трехкратное превосходство в силах. Но здесь было ровно наоборот: японские войскакратно превосходили советский десант. Но мы победили, а наша страна поставила точку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Сейчас,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а Владимировича Путина, на Шумшу создается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священный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на вершине горы Северной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от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оля боя советских десантников с японскими танками – установить памятник, посвященный Победе Красной Армии в этом бою. Для этого объявлен конкурс. Уверен, что будет большой отклик от скульпторов, художников и других творческих людей,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в период до 29 августа 2025 года включительно. Прием Концепций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до 18 часов 00 минут по московскому времени 08 августа 2025 года. Подведение итогов Конкурса и объявление результатов Конкурса производится Экспертной комиссией 29 августа 2025 года.

К концепции памятника предъявляется несколько требований. Основ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идеей создаваемого памятника является образ стремительного наступления Красной Армии, прорывающей линию обороны японских войск в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сражени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Композиция должна быть визуально читаема со всех направлений и стать ключевой точкой пространства мемориального ансамбля.

Место установки памятника выбрано не случайно. Наиболее сложным моментом «Курильской операции» стала высадка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на самый северный остров гряды Шумшу – с 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оборонительными укреплениями, подземными тоннелями и дотами.

Освобождени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поставило точку в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е и стало одной из самых кровопролитных операций августа – сентября 1945 года. В проведении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участвовали 2-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ронт и Тихоокеанский флот. Советский десант был высажен на острова без танков и артиллерии, имея только лёгкое вооружение.

Кровопролитные бои за овладение островом Шумшу длились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После капитуляции японского гарнизона Шумшу 23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были освобождены острова северной и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гряды, прошла успешная операция по овладению островами Итуруп, Кунашир, Шикотан, Хабомаи.

Операция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завершилась 1 сентября 1945 года, за день до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доблестных боях отличились многие воины, 52 человека были удостоены высокого звания Герой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рием концепций и иных документов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курс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иде по адресу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организатора: rt@gvio.org.

Полож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открытого творческого конкурса на лучшую архитек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концепцию памятника, посвященного Победе Красной Армии в последнем бою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размещено по ссылке.

Напомним, в День Курильского десанта – 18 августа – состоится открытие первого этапа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Шумшу. В этот же день пройдет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высадки десанта 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спортивному триатлону «Высота 171».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етил финаль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убка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14 ию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и финальные состязания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ного физкультур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Кубок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етил мероприятия и пообщался с ветеранам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Вс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окруж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стали более 200 ветеранов СВО.

С момента начала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мы делаем все, чтобы бойцы и их семьи чувствовали нашу поддержку. Сегодня на повестке вопрос реинтеграции ребят, которые возвращаются с передовой. Мы делаем все, чтобы наш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участвовали во всех сферах жизни – вели патриотическую работу с молодежью, активно вовлекались в социальную жизнь, был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в органах власти 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Важно, что Сахалин стал площадкой 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портив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окружного уровня. Наш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должны вести актив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и подавать пример молодому поколению,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егодн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ходит очень много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линии Пара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России. Подготовка к олимпиаде в Токио проходила на Сахалине. Тогда наши горнолыжники и теннисисты показали очень хорошие результаты.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за такой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организации и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Мы посмотрели центр водных видов «Волна», очень впечатляет. Строится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ий манеж, а легкая атлетика – это тоже один из базов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для паралимпийцев. Сахалин, безусловно, вызывает у нас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подготовки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различным дисциплинам, – отметил президент Пара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РФ Павел Рожков.

В завершающий день состязаний участники определили лучших в настольном теннисе, пауэрлифтинге, стрельбе из лука и спортивном метании ножа. Впервые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л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шоу-дауну –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для людей с нарушением зрения.

Эт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й вид спорта. Теннисистам важно хорошо слышать и различать звуки удара и движения мяча. Все акцентируется именно на слухе. Чемпионат России собирает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из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регионов. Спортсмены играют в течение 3 дней на 4 и более столах.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россияне показывают хорошие результаты, есть мастера спорт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ласса. И мы привлекаем их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мастер-классов, чтобы они рассказывали таким же ребятам с проблемным зрением, как они добились таких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Сразу интерес появляется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СВО, – рассказал судья сегодняшних состязаний Илья Смирнов.

Как отметил один из ветеранов СВО,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объединяют ребят и помогают найти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уже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ия военной службы. Юрий добровольно отправился на передовую в 2022 году, подписав контракт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ороны РФ. В ходе выполнения поставленных боевых задач участвовал в штурмовых отрядах. Сегодня мужчина ведет патриотическую работу с детьми, помогает сослуживцам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и найти себя в мирной жизни.

По возможности я стараюсь посещат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подо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Это очень значимо для меня, ведь принимая в них участие, мы своим примером показываем, что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насколько сложными оказались жизненные испытания, важно продолжать идти вперед. Я принимаю участие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улевой стрельбе и настольном теннис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я не занял призовых мест, главное участие. Впереди нас всех ждет одна общая Победа, когда завершится СВО, – отметил Юрий.

Напомним, турнир «Кубок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ДФО прошел на Сахалине с 11 по 13 июля. Организаторы турнира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фонд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Паралимпийский комитет Росс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РФ.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обеспечить доступность Охинской ЦРБ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пациентов

О результатах поездки в Охинский район «Губернаторский контроль» доложил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Специалисты контро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проверили ход выполнения 20 поручений главы региона в северном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Контрольная группа выяснила, что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исполнили 6 наказов. По 5 поручениям требуется приня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По остальным не вышли сроки, и работа местных властей продолжается.

Комиссия убедилась, что после встреч губернатора с жителями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в селе Восточном появился фельдшер. В детском саду «Золушка»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кровлю, а на площадке детского сада «Звездочка» уложили безопасное покрытие. Охинцы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бесплатно посещать спортив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Дельфин».

В ходе поездки контрольная группа завела еще 2 поручения. Они касаются подтопленного подвала на улице Красных Партизан, 15 и доступной среды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пациентов в Охинской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е. Губернатор заслушал доклад и поддержал включ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оручений в протокол.

Спустились в подвальное помещение и увидели, что его подтапливает грунтовыми водами. Фактически это был потерянный подвал, мы попросили област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ЖКХ добавить его на еженедельный контроль. Выяснили, что проблема в частично разрушенной отмостке. До конца июля Охин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должна все исправить, – сообщ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контро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ей Юрьев.

С контроля подвал не снимаем, пока не убедимся, что причина подтопления не устранена. И в этом году необходимо делать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чтобы история больше не повторялась,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сполкома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Алена Силачева рассказала о посещении Охинской ЦРБ. Здесь комиссия удостоверилась, что ряд поручений главы региона выполнен. Компьютерный томограф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 пациенты снова проходят диагностику. А по просьбе родителей маленьких пациентов на север регулярно приезжают уз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для детей.

Мы поговорили с пациентами. Люди подтвердили, что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стала доступнее. Хорошие отзывы получили и о качестве услуг и работе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Также в больнице сделали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фасада, но не все идеально, – сообщила Алена Силачева.

Одна из маломобильных пациенток поделилась с «Губернаторским контролем», что для нее проблема – визит в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приня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ы и обеспечить доступную среду для охинцев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по здоровью.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здрав должен убрать высокий порог и сделать пол в тамбуре, а пока на время предусмотрели временный настил.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нтроля» рассказали главе региона о ликвидации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ой свалки. С просьбой убрать беспорядок к губернатору обрат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Охи во время прямой линии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это свалка на месте разрушенного после пожара дом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тогда сообщила, что грунт промерз, убрать фундамент невозможно, поэтому работы сделают в летнее время. Вы, Валерий Игоревич, поручили до 1 июля все стихийные свалки ликвидировать. Мы убедились, что в Охе работу над ошибками провели, и мусор убрали, – добавил Алексей Юрьев.

Продолжайте держать ситуацию на контроле. Вы – мои глаза и уши в каждом районе области. Недопустимо, чтобы чиновники на местах отчитывались, что все сделано, а люди видели обратное. Важно общаться с жителями. Собирайте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из первых уст и обязательно передавайте мне,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помним, «Губернаторский контроль» – это новый проект, запущенный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региона и призванный проверять, как исполняются его поручения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С начала года комиссия побывала как в южных (Холмский, Анивский, Долинский), так и северных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Охинский)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ход работ по капитальному ремонту сет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межотопительный период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а масштабная программа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тепловых сетей сразу в нескольких микрорайонах города. Это направлено на повышение надежности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аварийных ситуаций в грядущем отопительном сезоне. Ход работ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начительный объем работ запланирован в 9-м микрорайоне, где на трех участках будет произведена перекладка почти 1,5 км тепловых сетей.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после серии повреждений, выявленных в прошедший отопительный сезон. В связи с этим, с 6 июня по 31 июля в микрорайоне временно ограничили горячее водоснабжение.

В городе идет масштабная перекладка тепловых сетей – это часть трёхлетней программы подготовки к зиме. Работы проводит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ая команда, у нас есть вся необходимая проектн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и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онимаю, что перекапывание дорог создаёт временные неудобства для жителей. Но главное – уже через три года мы получим современные, надёжные тепловые сети, и аварийный станет значительно меньше. Это инвестиция в комфорт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шего город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щая протяженность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ных сетей за межотопительный период составит около 2600 метров. Часть работ потребует временного ограничения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однако коммунальные службы намерены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неудобства для горожан. В частности, на ул. Чехова сейчас меняют участок трубы чеховского коллектора. Замена этого участка теплосети важна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сперебойного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порядка 25 тысяч жителей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2025-2026 годов. Ведут работы на ул. Поповича. В рамках реконструкции будет произведена замена старого трубопровода, отработавшего свой нормативный срок.

В короткий межотопительный период важно оперативно и качественно провести обновление всех сетей, важных для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города. В целом ход работ сейчас в графике, ведем контроль за тем, чтобы все работы были завершены к отопительному периоду. Конечно, в определенной степени жители испытывают дискомфорт,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перекладка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сетей приведет к безаварийной работе зимой, – отметил мэр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Подготовка к предстоящему отопительному сезону ведется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его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этом году заменят более 14 км сетей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Наибольший объем тепловых сетей планируется заменить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 1,16 км,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 1,25 км 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6,3 км.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전문가들 "고려인 청소년 교육에 관심-지원을"...

동포청 "정책 반영 노력"

11일 아시아발전재단 포럼에 교육전문가

30여명 참석해 발표와 토론

이기성 동포청 정책국장 의견 청취...

"정책적 지원 위해 최선" 약속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들의 교육과 진로를 고민하는 전문가들은 11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청했고,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시아발전재단(상임이사 조남철)은 이날 충남 아산에 있는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비즈니스라운지에서 고려인 청소년 진로교육 정책 모색을 위해 '2025 전반기 고려인청소년교육협력협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는 조남철 상임이사를 비롯해 소학섭 로템나무 국제대안학교 이사장, 김기영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위원, 김태옥 충북대학교 러시아어문화학과 교수, 채예진 고려인글로벌네트워킹(KGN) 이사장이 참석했다.

또 손은숙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장, 김조훈 경주 하이아웃주민센터장, 전득안 광주 고려인국제학교 이사장, 김동원 양산 고려인지원센터장, 신난희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 고려인 청소년 교육 관계자 30여명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정부를 대표해 이기성 동포청 정책국장도 자리를 함께하며 축사와 함께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했다.

포럼은 '고려인 청소년과 학교 밖 교육', '고려인 청소년과 진로 교육 멘토링', '자유토론'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소학섭 이사장은 한국어 능력 부족과 정체성 혼란 등 고려인 청소년들이 공교육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은 뒤 "현재 한국 최초의 고려인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김기영 연구위원은 "고려인 청소년

들은 '한국인', '고려인', '외국인'이라는 경계에 있는 존재"라면서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옥 교수는 청주 고려인 밀집 거주 지역내 청소년 멘토링 현황 등을 발표하고, 충북지역에서 진행중인 역이주와 통합을 위한 지원활동을 소개했다.

채예진 이사장은 고려인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이 원하는 삶의 질 향상 방안을 심층적으로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청년 대상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재외동포(고려인) 대상 영주권·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심리 건강 지원 필요 등 실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이기성 국장은 "정부는 역사적 굴곡 속에서 고려인들이 겪은 고통과 애환을 기억하고 있으며 고려인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국회와 공동으로 국내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 대화* 개최를 추진 중이며, 국내 동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지자체, 국내동포단체, 학계 등 다양한 참여자와의 정기적 소통 및 공론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도출의 장

7.23. 국내 동포의 지방 정착, 8.29. 고려인 동포, 9~10월 중 중국 동포 관련 총 3회 개최 예정

(재외동포청 제공)

'한글로 쓰고 마음으로 잇다'...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개최

1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서 개막...46개국 235명 참가

김혜경 여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로 고국과 동포사회 깊게 연결"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매년 개최하는 '2025년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가 1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막을 올렸다.

'한글로 쓰고 마음으로 잇다, 우리들의 한글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연수에는 46개국 235명의 교사가 참가했다.

이날 개회식은 이상덕 청장의 개회사, 호주 웨이블리한글학교 조영애 교장의 참가자 대표 인사말, 영부인 김혜경 여사의 영상 축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덕 청장은 개회사에서 "언어를 잇으면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를 잇게 되므로, 한글학교 선생님들은 민족 정체성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며 "AI시대에 발맞춘 교수법부터 다문화학교 현장 방문, 선생님들을 위한 심리 강연까지 실질적이고 따뜻한 연수가 되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36년째 한글학교에서 봉사해 이번 참가자 중 최장기 근속 교사인 조영애 교장은 "이번 연수가 서로의 열정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교실로 돌아갈 힘을 얻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했다.

김혜경 여사는 영상 메시지에서 "머나먼 타국에서 재외동포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일은 언어교육을 넘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우리 정체성을 전해주는 과정"이라면서 "주말 한글학교는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아이들이 한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울타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낮선 땅의 작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언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서와 연결되는 기적 같은 경험을 만들어 주시는 한글학교 교사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글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노고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가 더욱 깊게 연결되고 있음을 기억하겠다"고 격려했다.

개회식에 이어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마음'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이 강연은 정체성 교육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참가자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학생들은 교사들을 위해 가야금 5중주와 해금 6중주 '아라리요'와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연주해 환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개회식에 앞서 참가자들은 북카페처럼 꾸며진 '재외동포청 팝업스토어'에서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러운 교류의 시간을 가지면서 1회부터 26회까지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자 전권도 감상했다.

참가자들은 15일부터 19일까지 △AI 활용 수업 실습 △다문화학교 안산원곡초등학교 방문 △수준별 한국어 말하기·쓰기 교수법 수강 △재외동포청 방문 △재외동포청 한글학교 담당자들과의 지역별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청, 10개국 한인 정치학자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14일 제28차 세계정치학회 세계대회(서울 총회) 참가 100여명 초청해 리셉션 개최

이재명 정부 재외동포 정책 비전 제시 및 네트워킹 강화... '하와이 연가' 관람도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14일 '정치학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제28차 세계정치학회 세계대회-에 참가한 재외동포 정치학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2년마다 치러지는 이 대회는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한국은 1997년에 이어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2번 유치했다. 현재 세계정치학회 회장은 스페인 공립종합대학교인 발렌시아대 파블로 오냐테 교수가 맡고 있다.

이번 서울 대회는 지난 7월 1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엑스에서 개막했으며 80여 개국에서 3천여 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재외동포 정치학자는 이태구 미국정치학회장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호주 등 2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170여 명이다.

재외동포청은 14일 코엑스 인근 소노펠리체 컨벤션센터에서 재외한인 정치학자들과 연구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한국정치

학회(회장 김범수 서울대 교수)와 공동으로 '재외동포 정치학자 초청 공식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번 리셉션은 학문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외동포 정치학자와 한국 정부 간 채널을 구축하고, 동포 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확장을 동시에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리셉션은 김범수 회장의 개회사, 이상덕 청장의 환영사, 파블로 오냐테 회장의 축사, 참가자를 대표해 이태구 회장(하버드대 교수)의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이상덕 청장은 "작년 재외동포청장 취임 이후 세계 각국에서 우수하고 헌신적인 동포들을 만나며 큰 감명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는 그 연속선상에 있다"면서 "재외동포청은 정체성(identity), 연결성(connectivity), 공동번영(mutual prosperity)을 핵심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한민족 정체성 보존이 핵심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재외동포 정치학자들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각국 한인사회에게 기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알리는 여론 형성자(opinion leader)이자 교육자로서 차세대에게 한국 정체성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의 설립은 2년밖에 안됐지만, 대한민국의 100년을 준비하는 조직"이라면서, "재외동포를 위한 한인정체성 함양과, 차세대 교육 그리고 재외동포의 국내 거주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재외동포 학자들이 국제무대에서 계속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파블로 오냐테 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한인 정치학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번 리셉션을 개최한 재외동포청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태구 회장은 "한국의 디아스포라 역사는 제국주의로부터 자유를 위한 한국의 투쟁과 긴

밀히 연결돼 있다"면서 "현재, 미국 내 한인들은 여전히 시민권, 의료보험 등에 있어서 여전히 취약하다"며 "재외동포청이야말로 한인 디아스포라와 함께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정부기관이다"라고 강조했다.

행사 후 오찬 및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재외동포 정치학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어졌으며, 1902년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들의 삶과 사랑을 음악으로 풀어낸 다큐멘터리 '하와이 연가'(감독 이진영)를 통해 동포 정체성에 대한 감수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영화를 본 후 "한국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세계 속의 한국인"이라는 메시지에 깊은 공감을 표했으며 동포 정체성과 연결성(connectivity)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리셉션을 계기로 정책 수요자이자 오피니언 리더인 재외동포 정치학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재외동포 학술 공동체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우글레고르스크, '러시아 차 축제' 성료

7월 12일 우글레고르스크에서 사할린 주내 여러 곳에서 모인 수백 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연례 '러시아 차 축제'가 열렸다. 독특한 전통으로 섬 밖에도 알려진 행사다.

행사에 참가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반세기 이상 동반한 부부에게 명예 배지를 수여했다.

축제에는 다양한 테마존이 마련됐다. 한 곳에서는 특별군사 작전 지역 사할린 군인 위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 다른 부스에서는 행운의 발급·동전 만들기 체험, 특별 장비를 이용한 기념품 제작 등이 진행됐다. 맛있는 블린(러시아식 팬케이크)대회도 전통적으로 열렸으며, 이웃 포로나이스크 도시 팀도 참가했다.

'행복한 모성' 테마존도 큰 인기를 끌었다. 젊은 가정 지원 정책 및 섬 내 출산·육아 지원 방안 등이 소개됐다.

В Углегорске провели Праздник русского чая

В субботу, 12 июля, в Углегорске провели ежегодный Праздник русского чая, который собрал сотни островитян со всех уголк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его уникальной традиции знают даже за пределами острова.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оторый вручил почетные знаки супругам, прожившим вместе более полувека.

На празднике Русского чая гостей ждали интересные тематические площадки. На одной из них собирали подарочные наборы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бойцов в зоне СВО. На другой площадке гости могл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мастер-классе по чеканке подков и монет, изготовить брендированные сувениры на специальном оборудовании.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вели конкурс на самые вкусные блины. Даже команда из соседнего Поронайска приехала на кулинарное состязание.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овалась площадка «Счастлирое материнство». Здесь рассказывали о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молодых семей и о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ях для рождения и воспитания детей на островах.

유즈노사할린스크, 9월 콘서트에 '라디오 타폭'·가즈마노브·펠라게야·'제믈랴네' 등 출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과 관객들을 9월에 음악선물이 기다린다. 9월 3일 승리 광장에서 열리는 콘서트에는 올레그 가즈마노브, 펠라게야, 세르게이 갈라닌과 밴드 '세르가', 레전드 록밴드 '제믈랴네', 라디오 타폭('Radio Tapok') 등 러시아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다.

이날은 대중적 히트곡과 강렬한 록 에너지로 가득한 공연이 예고된다. 대공연은 오후 7시 시작하며 오후 10시 화려한 불꽃놀이로 마무리된다.

주최 측인 사할린 필하모닉은 준비를 확인하면서도 출연진 추가 명단·세부 사항은 관객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기 위해 비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Radio Tarok, Газманов, Пелагея и «Земляне» выступят для жите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сентябре

Грандиозный музыкальный подарок ждет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 80-й годовщин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3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состоится масштабный торжественный концерт с участием целой плеяды звезд российской эстрады и рок-сцены.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выступят легендарный Олег Газманов, самобытная Пелагея, харизматичный Сергей Галанин и его группа «СерьГа», культовая рок-группа «Земляне» и невероятно популярный проект Radio Tarok.

Этот звездный состав обещает незабываемый вечер, наполненный как всенародно любимыми хитами, так и мощной рок-энергетикой. Начало большого концерта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19:00, а кульминацией праздника станет красочный фейерверк, который озарит небо над городом в 22:00.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филармонии, которая выступает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нцерта, подтвердили подготовку к масштабному событию, однако отметили, что список артистов может быть расширен, а другие детали и возможные сюрпризы пока держат в секрете,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интригу для зрителей.

러시아, 외국인 디지털 프로파일 기반으로 신분증 발급

러시아가 2026년 도입 예정인 정보시스템 '외국인 디지털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이민자용 신분증(ID 카드)을 발급한다. 이는 러시아 연방 내무부 이민국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새로운 정보 자원을 기반으로 한 신분증은 러시아에서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단일 문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디지털 프로파일'은 각 기관 정보시스템에 흩어진 외국인 정보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무부는 "기술적 기반은 외국인 생체정보(얼굴 사진·지문) 데이터베이스"라고 설명했다.

В России появятся ID-карты на базе цифрового профиля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В России введут ID-карты для мигрантов на баз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ресурса «Цифровой профиль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который заработает в 2026 году.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Telegram-канале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и МВД РФ.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ID-карты на базе нов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ресурса станут единым документом, удостоверяющим личность иностранца в России.

Ресурс «Цифровой профиль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позволит объединить в единое цифровое досье весь набор сведений об иностранцах, который содержится в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истемах различных ведомств.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основой эт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ресурса является банк биометрических дан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фото и отпечатки пальцев)», — отметили в МВД.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од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 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